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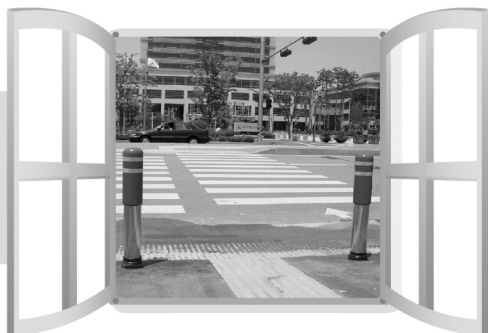
손으로 보는 세상

2008, August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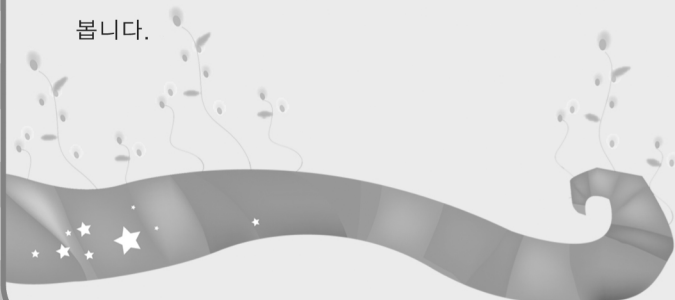
차별과 편견 없는, 모두를 위한 ‘장애물 없는 도시’를 만들자.

정 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건물과 시설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친장애인 건물 인증제’를 7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계가 추진해오던 ‘장애물 없는 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늦게나마 정부 의지가 표명되어 다행입니다.

그동안 도시 환경에서의 장애물 제거를 위한 부분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혜와 배려에 기반한 특별대우로서의 편의시설 설치에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편견과 배제를 낳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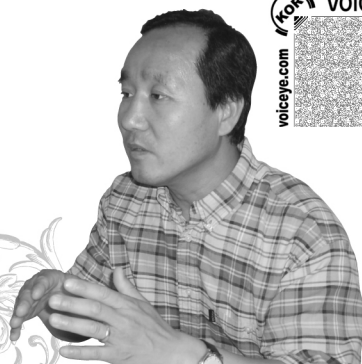
이제 ‘무장애’라는 개념은 시혜와 배려로서의 특별대우가 아니라 장애인, 노인, 아동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분리와 배제를 전제로 한 편의시설의 설치에서 처음부터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장벽의 제거, 더 나아가 차별과 편견이 배제된 모두를 위한 도시 환경의 건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정책에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장애 대중들의 역할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합 교육과 개개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양수 씨 (미국 워싱턴 주 재활공학 전문요원)

20대에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은 워싱턴 주에서 시각장애인 재활을 위해 일하고 있는 조양수 씨(48). 그는 장애인들이 직업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환경 요건을 적절히 보완하고, 설계하고, 때로는 제품으로까지 만들어내는 재활공학 전문요원이다.

녹내장 진행으로 서서히 실명하게 된 그는 한국에서 교육학과 특수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재활공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라파엘집 부원장으로 일하면서 실무를 보았는데, 이론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식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8년 미국의 헬렌켈러가 졸업한 퍼킨스맹학교에 인턴십으로 가 정보공학과 특수교육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그는 재활공학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라고 말한다. 시각장애인들이 맹학교에만 있으면 편안하고, 아는 사람들끼리의 친근감은 있겠지만 그러다보면 사회를 보는 시야가 좁아져 덩달아 사회로 나아갈 폭도 좁아지게 된다는 것. 다만 장애인도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또 한가지 한국의 문제점은 미흡한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개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고. 흥미를 찾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개개인에 접근하는 직업 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 직업을 갖는 데 자유로워야 하고, 만일 시각장애인인데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를 논의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활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조양수씨. 그의 바람대로 우리나라에도 미국 처럼 시각장애인 내과외사가 배출될 수 있는 정도의 직업 환경이 하루 빨리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래프팅교실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래프팅 교실을 열었습니다.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은 물살을 가르며 급류를 타는 짜릿함을 만끽하였습니다.



'제2호 히딩크 드림필드' 개장식

거스 히딩크 감독이 7월 9일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인 '드림필드II' 개장을 위해 방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 3호 드림필드를 수원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진제공 : 한동대학교

♣ 대교 어린이 TV 성우극회 오디오북 제작 봉사

대교 어린이 TV 성우극회(회장 홍승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봉사를 하였습니다.



♣ 시각장애학생들 영어 어학연수

정인육복지재단의 지원으로 10명의 시각장애인이 7월 26일 미국으로 영어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꿈을 이루게 해준 정인육복지재단에 감사드립니다.



♣ 시각장애 선수들 문화체육관광부 훈 포장 받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6월 26일 각종 국제 장애인경기 대회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전국 동계 장애인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임원 및 숨은 유공자들을 시상했습니다.



기초재활교육

지난 8월18일(월)에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도실명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재활교육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보행과 같은 일상생활훈련 뿐만 아니라 점자교육, 여가활동 등을 통해 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12월5일까지 진행됩니다.



제 13회 제일모직배 탁구대회



사랑을 실천하는 제일모직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앞서 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7월 9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제일모직배 전국 시각장애인 탁구대회'가 남녀 선수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 제일모직 직원 30여 명도 자원봉사자로 함께해 대회가 더욱 빛났습니다.

전국의 시각장애인(전맹, 저시력)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전맹 남자 개인은 한호철씨, 전맹 여자 개인은 한은수씨, 저시력 남자 개인은 김한근씨, 저시력 여자 개인은 전정숙씨, 단체는 서울 명학교팀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1. 선수 대표가 페어플레이를 약속하는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2. 이기인 제일모직 상무가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3. 영광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트로피들.





에스컬레이터를 안내할 때

올라가는 곳인지 내려가는 곳인지를 설명해주고 오른쪽 손잡이를 잡도록 해 주세요.



* 후원안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 32조, 법인세법 제18조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문의전화: 02-9500-104)

계좌번호 우리은행 : 1006-601-227253 (예금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4권 8호 통권 97호

2008년 8월 1일 발행

발행처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전화 : 02-9500-136 _ 팩스 : 02-934-8069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 139-831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1

제작 : 주비컴
전화 : 02-2091-1255 _ 팩스 : 02-2091-1253

표지이야기 : 좌상단 : 제일모직배 탁구대회 경기하는 모습 우상단 : 순회재활교육 모습
 하단 : 강원도 홍천에서의 래프팅 교실